

지역 소식 통

부안군, 2024년 건강증진 사업 우수기관 표창 휩쓸어

부안군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 증진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려 기관상과 개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건강증진분야(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도시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지역사회건강조사,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개인 표창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모자보건 유공기관 장관 표창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에 공적을 세운 기관에 주는 것으로 군은 2024년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완화(확대 지원),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인정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5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 접수

정읍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1차 접수를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고 청년농에게는 이자를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생산 설비사업,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이다.

올해는 지참을 완화해 시설자금 지원 한도를 개인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인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상환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했으며 특히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민 신년하례회 개최

기관사회단체장 · 임직원 등 참석...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낭독

고창군이 새해를 맞아 지역 기관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회를 열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창군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5년 신년사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신년 하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들과 함께 서해안철도(목포-고창-군산)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이 열렸다.

군민들은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새해에는 모두의 소망과 염원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5년도 지정기부 목표액 1억원 설정 모금 시작

부안군, 2024년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5개월간 8012만원 모금

부안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야생별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약 5개월의 모금기간 동안 목표액 1억원 중 8012만원을 모금했다.

이에 약 80% 달성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야생별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은 부안군 제1호이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처음 시작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야생별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 지정기부 프로젝트다.

기부금은 비호털 설치, 밀원 식물 확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군은 2025년에도 ‘야생별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이어가며 지정기부 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는 야생별 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경 교육 확대와 생태계 보호 사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군은 이번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 지역 축제 연계 홍보, 타지역 향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정기부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짧은 모금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모금액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찾아가는 행정의 힘...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사례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취득



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서류를 검토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불편 최소화, 책임행정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인사 · 조직개편 인수인계 철저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6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1월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를 주문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됐다”며 “누수 없는 인수인계를 통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시는 2025년을 맞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4국 2직속 39실·과·소, 280팀 체제에서 5국, 2직속, 39실·과·소, 257팀 체제로 재조정됐다. 이번 개편은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별로 5개 과를 배치해 국장이 중심이 되는 책임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기존에는 팀장과 과장이 주축이었던 업무 체계를 국장이 주도하도록 변경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국과 부서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업무 체계를 구체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화 능동적 대응 지속 가능 부안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서 동절기 화재 예방 철저 등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5년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달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이루기 위해 군정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2025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확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교육 강화와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큰 호응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농정 공약중 하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올해도 중점 추진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2022년 7월 취임 일성으로 “재해보험 군비 부담은 늘리고, 농가 부담은 덜어내겠다”고 약속했었다.

2022년 기준 20%였던 농가부담금은

2023년과 2024년 각 5%씩 추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1월 현재 농가부담금 10%로 낮아졌다.

덕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22년 813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9278곳으로 약 1000개 농가가 증가했다.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고추, 노지수박, 복분자, 단호박 등 지역별로 약 70개 품목이 가입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